송강저수지 흙탕물 배출·물고기 폐사

댐 높이기 공사 위해 여방수로 통해 내보내 … 공사 관계자 "대부분의 물고기는 뻘 속에"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거진읍 냉천리 소재 농업용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 과정에서 저수지에 갇혀 있던 잉어와 붕어 등 물고기들이 흙탕물과 함께 인근 계곡으로 흘러가 죽은 채 발견되고 있다.

또 공익 제보자에 따르면 일부 얌체 주민들이 인적이 뜸한 시간대를 이용해 흙탕물로 뒤덮인 계곡의 바위틈에서 돌을 들춰내며, 숨을 헐떡이고 있는 물고기들을 마구 잡아 마대에 담아가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11일 송강저수지 댐 높이기 공사 현장 인근 계곡으로 흙탕물이 내려오고 있는 모습(왼쪽). 오른쪽은 이 흙탕물에 섞여 떠내려온 물고기들이 죽어있는 모습.

주민들은 "저수지가 생기기 전에는 자산천에 각종 물고기들이 많았으나, 저수지 준공 후 고기들이 대부분 사라졌다"며 "저수지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지도 못하게 하더니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이와 함께 물이 빠진 저수지 밑바닥에 죽은 나뭇가지와 썩은 나뭇잎 등 각종 오물이 노출되자, 담수를 하기에 앞서 오물들을 준설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관계자는 "취수탑 등의 공사를 위해 물을 빼는 과정에서 일부 고기가 여방수로를 통해 빠져나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물고기는 남아 있는 물과 뻘에 숨어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사에 치중하는 관계로 물고기 문제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바닥에 쌓인 오물 준설과 관련해서는 "12월 중순경 담수를 하기전에 큰 나뭇가지 등은 걷어낼 계획"이라며 "본격적인 준설은 별도의 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번에는 준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담수가 된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방파제 '삼발이' 이동중 추락 빈번

11일 반암서 1명 사망 … 대부분 음주 상태서 발생

항포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기관에서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출입통제 및 경고문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술에 취해 삼발이(TTP : Tetrapot, 테트라포트)에서 낚시를 하거나 건너다가 추락하는 사고는 끊이지 않아 주의가 요구된다.

속초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고성군 거진읍 반암항 방파제 TTP에서 술을 마시고 낚시를 하던 권모씨(49세, 경기도 부천시)가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일행 3명이 방파제에서 술을 마셨으며, 사망한 권씨도 짬짬이 술을 나눠 마신 상태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TTP와 방파제를 오가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행은 낚시를 하던 권씨가 보이지 않자 주변을 찾던 중 TTP 아래에 추락해 물에 떠있는 권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속초해경과 119구조대가 현장으로 긴급 출동해 권씨를 구조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11일 오후 4시께에는 양양군 물치항 남방파제에서는 음주상태로 사진을 촬영하던 이모씨(50세, 여, 경기도 안산시)가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했으나, 다행히 큰 부상 없이 구조됐다.

또 8일에는 밤 9시께 거진읍 거진항 남방파제 TTP에서 일행과 함께 낚시를 하던 이모씨(70세, 서울시 성동구)가 TTP 사이를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추락했다가 구조되기도 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갯바위나 방파제 구조물에는 표면에 생긴 해초류로 인해 미끄러워 자칫 추락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한순간의 부주의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광호 기자

속초소방서 · 속초우체국 업무협약

속초소방서(서장 최민철)는 지난 12일 '화재와의 전쟁'과 관련해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속초우체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내용은 산불과 화재 예방 등 안전에 대한 경험과 기술 등 상호정보 교류, 사회 공헌 활동 및 운영 참여, 신속한 지원업무 수행, 화재 피해 저감 관련 사항 공동협력 등이다.

원광연 기자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

제5회 도지사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가 18개 시군 여성의용소방대원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11일 속초시 노학동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여성의용소방대원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서는 심폐소생술,부목고정응급처치, 장기자랑 등 3개 종목의 경연으로 진행됐다.

대회 결과 종합 1위는 양구여성의용소방대, 2위는 원주여성의용소방대, 3위는 속초여성의용소방대가 각각 차지했다. 고성여성의용소방대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해 내년 대회를 기약했다. 원광연 기자

6.25참전 전공자에 화랑무공훈장 수여

육군 22사단은 지난 10일 6.25참전 전공자 가족을 부대로 초청해 화랑 무공훈장을 수여식을 가졌다. 사단장이 전공자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최광호 기자